

글로벌경영학회지  
제20권 제1호 2023년 2월 pp.51~71  
글로벌경영학회

##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이 반려인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엄선이\* · 조동혁\*\*

### 〈요 약〉

현대사회에 사회적 현상으로 1인 가구,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이 인생의 동반자나 가족으로 점차 인식되어 가고 또한 가족의 구조변화로 소통의 기회가 줄어들어 고립감이나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점차 증가되어서 2021년 기준 10가구 중 3가구로 606만 가구에 달하고 있다. 이제 반려동물은 가족의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매김 하고 있는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반려동물과 상호작용이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가설 및 설문문을 개발하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문을 실시하여 총 189부의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상호작용,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행복감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호작용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호작용은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아존중감은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은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반려동물과 상호작용이 반려인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확인함으로써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이는 반려동물의 상호작용이 반려인의 삶에 있어서 동반자 역할의 중요성과 더불어 바람직한 반려동물의 양육은 인간의 전인적 발달과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반려동물, 상호작용,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

\* 주저자, 숭실대학교 프로젝트경영학과 박사과정 (umsunlee1212@naver.com)

\*\* 교신저자,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 (joe@ssu.ac.kr)

최초접수일 : 2022년 12월 05일 심사수정일 : 2022년 12월 30일 게재확정일 : 2023년 01월 03일

## I. 서론

현대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로 인간관계의 단절로 인해 소외감 및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에 정서적 교감을 채워 줄 수 있는 반려동물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김혜영, 2014; 김세영, 2017). 반려동물은 인간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자아존중이나 주관적 행복감을 반려동물이 매개체가 되어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을 제공해 준다(McNicholas et al., 1995; 한아람, 2018). 반려동물이란 용어는 “반려동물을 소유와 유희의 대상이 아닌 반려(伴侶)와 같이 여생을 함께 보낸다..”라는 의미 부여를 하여 친구, 가족, 애인 등과 동등하게 여기는 개념이라고 정의된다(마상진, 2004).

반려동물은 인간과 함께 협력관계로 생활하며 인류 초기 역사 때부터 고양이와 개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상호작용을 통하여 온전히 자리매김을 하는 방향으로 진화하였다. 그것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긍정적인 정서적 교류를 통해 서로 관심과 애정을 나누는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Fawcett, 2001). 인간과 반려동물은 오랜 시간 동안 정서적 교감을 이루어 왔을 뿐 아니라 반려동물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이나라·최현정, 2021). 반려동물과의 양육이 현대사회에서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간에게 반려동물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다. 반려동물은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의 의사 소통기술과 사회적 기술 향상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poresky & Hendrix, 1990; 이한나, 2022).

반려동물은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생활을 하면서 애완동물이 아닌 인간의 가족이나 친구, 동반자와 같은 역할로서 함께하고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애완동물이라는 의미에서 벗어나 반려인과 더불어 긍정적인 정서 교감을 경험하고 있다(지인배 등, 2017; 한아람, 2017). 이와 같이 반려동물은 인간의 심리적 발달과 적응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인간은 자신과 함께 지내는 반려동물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형성되고 주관적 행복감을 느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반려동물 양육 여부가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우울감 수준에 상관없이 심근경색 환자들의 사망률을 67% 정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반려동물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함께 하는 놀이와 산책 등의 활동을 통해 운동량과 신체감각의 자극이 증가하고, 반려동물과의 대화를 통해 혈압 및 콜레스테롤 수치, 긴장과 스트레스 정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Friedmann et al., 2011; 정한나, 2018).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현대인들은 사용하는 언어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눈빛, 소리, 몸짓을 통해 다양한 소통을 하게 된다. 서로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 ‘동물도 감정과 유대

감이 있는 사람들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동반자로서 깊은 신뢰감과 정서적 교감을 경험하고 있다(권혜준, 2015). 반려동물의 먹이주기, 놀아주기, 말동무하기는 반려동물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하기도 한다. 반려동물과의 바람직한 상호작용과 유대감은 힘든 일이 있을 때 반려인이 잘 견딜 수 역할을 해주고, 외로움이나 소외감 등을 감소시켜 준다고 한다(McNicholas et al., 1995; 이은희 등, 2011).

어린 시절 반려동물을 키웠던 사람은 동물과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며, 공감 능력이나 사회적 활동의 지능 수준과 협동심이 더 높은 편이다(Melson, 2001). 선행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기는 유아들의 감정이입 능력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으며, 자신과 타인의 감정 및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oresky & Hendrix, 1990; 이화수, 2001).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교육이 아동의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로(권혜준, 2015), 아동은 타인에 대한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친절함과 유대감 형성이 증가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됨과 더불어 사회화가 촉진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Henderson, 1997; Purewal et al.,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선행연구에는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이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의 변수관계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려동물과 상호작용이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어떤 요인이 반려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1인 가족, 핵가족이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반려동물에 관한 연구의 기초자료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II. 이론적 배경

### 2.1 상호작용

상호작용은 양방향의 작용과 반작용을 겪으면서 사회를 구성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본질적인 체계를 의미한다. 이는 둘 이상의 물체나 개체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한쪽으로 부여되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호 간의 주고받는 양방향의 의미이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물리적 현상을 포함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으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환경과 타인들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작용하는 언어소통과 비언어 소통이다(정의경·황해익, 2000). 사회적 상호작용은 한 개인의 행동이 다른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유형으로 언어적 소통뿐만 아니라 몸짓이나 표정 등 행동을 할 때도 상호작용을 한다.

가족 구성원 사이의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인간의 발달과정과 정서적 교감에 중요한 원천이 된다(마상진, 2004). 이는 부모에게 안정감을 느끼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한 자녀는 높은 자존감과 사회관계 및 정서 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독립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지지적이고, 수용적인 상호작용을 하면 자녀의 자존감이 높게 형성되고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긍정적으로 대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높아진다(이수진 등, 2008).

반려동물과 상호작용에서도 언어적 상호작용과 비언어적 상호작용으로 나눌 수 있다. 언어적으로는 반려동물과 대화를 통해 인사하기, 훈련시키기, 대화하기 등이 있고 반려동물과의 바람직한 대화로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이 형성 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지지나 주관적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 비언어적 상호작용으로 목욕 시켜주기, 먹이주기, 화장실 청소해주기, 흉내 내기 등으로 반려동물을 쓰다듬거나 눈을 맞추므로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Endenburg, 1992; 이나라·최현정, 2021).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에서는 반려인이 사회적 위치나 지위에 상관없이 무비판으로 무조건 수용함으로써 자기개방이나 상호작용, 감정표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신정인·강영걸, 2016; 이나라·최현정, 2021).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 개방이나 자기수용이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불안함을 감소시키고 사회적지지자 역할을 함으로써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상담역할을 하기도 한다. 반려동물 상호작용은 반려동물을 단순한 소유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보고 반려인들의 고립감이나 소외감을 해소시켜 주고 사회성발달과 자아존중감 증가로 긍정적인 관계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에 대한 감정과 표현을 쉽게 할 수 있고 반려동물과의 교감과 소통은 반려인이 에너지를 소진하고 돌아왔을 때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사이가 된다(마상진, 2004; 윤주상·김재호, 2018).

## 2.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건전하고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성장하는 인간적 욕구가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정의했으며 .자아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은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것으로 자신에 대한 능력과 가치를 파악하고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을 부정하거나 긍정적으로 보는 태도로 자신을 생각하는 존중과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고 했다(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은 스스로가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생각하며 가치 있는 인간으로 느끼는 전반적인 감정을 말한다. 반대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자신의 태도로 정서적 심리적 문제를 겪기 쉽고 억압적이고 부정적이며 의존심이 많아 스스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자신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며 타인의 칭찬과 인정, 시선이나 언어에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Coopersmith, 1979). Maslow(1965)는 자기만족을 느끼는 단계로 자신의 잠재력을 발전시켜 극대화할 수 있는 자아실현의 욕구에 대해 5단계로 표현하

고,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에 대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 타인의 반응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고 이로 인해 발달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감정적인 측면에서의 자아존중감을 자기존중의 태도와 자기 인정, 자기수용에 대해 말하며 인격을 형성하고 자신과 타협으로 내부적이거나 외부적으로 적절하게 적응하며 자기 현실을 긍정적으로 성취해 나가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외적 자아존중감으로는 권력욕과 명예욕이 있으며 내적 자아존중감에는 독립심, 역량, 통달, 자신감 등이 있다 (Coopersmith, 1981).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 발달단계에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자신감, 유대감, 사회적지지등이 균형 있게 발달하지 못하면 자기 평가를 열등적이거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간주함으로 자신의 가치를 무능하다고 생각 한다(김혜정·장현숙, 2009). 어린 시절 경험한 주관적 행복감은 성인에 이르기까지 연관 되어 삶의 질이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며 전 생애발달에 걸쳐서 긍정적인 힘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Park, 2002). 자아존중감이 적절하게 형성된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사고로 학업 수행 친구관계에 적극적으로 태도를 보인다.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건강한 삶과 정서적 발달에 필요하고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Harter, 1983).

자아존중감은 반려동물을 양육함으로 나타나는 연구도 있다. 반려동물을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아동은 맡은 양육 책임을 수행함으로 느끼는 자신감과 가족으로부터의 칭찬으로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된다(Davis et al., 1989).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반려동물과 소통으로 자아존중감이 형성된 청소년들은 불안이나 우울 외로움 수준이 낮다고 했다(Black, 2012). 선행연구에서 보면 자아존중감은 특별하거나 일시적인 상황에서의 평가가 아닌 자신에 대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의 특성을 지니며(박미현, 2020), 사회적 관계에서도 다양한 부분에서 타인에게 인정받는 상호작용으로 스스로에 대한 행동과 언행에 책임을 지며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박미란·김혁곤, 2004).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판단으로 좌우되는 인격 발달과 자기실현을 성취함에 있어서 직면하는 문제 해결 방식이나 결정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마상범, 2014). 인간의 발달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아존중감은 정신 건강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건전한 성격발달, 바람직한 환경 적응 긍정적인 자아실현에 중요한 요인으로 전반적인 인생에 있어 발달과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정원·어주경, 2019).

## 2.3 주관적 행복감

행복감은 충분한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호뭇한 상태로 행복한 삶은 인간이 생활함에 있어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이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헌법 10조에서 규정된 “모든 국민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함을 존중하고 규정된 개별적 기본권을 국가는 헌법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행복 추구의 권리를 가진다.”라는 행복추구권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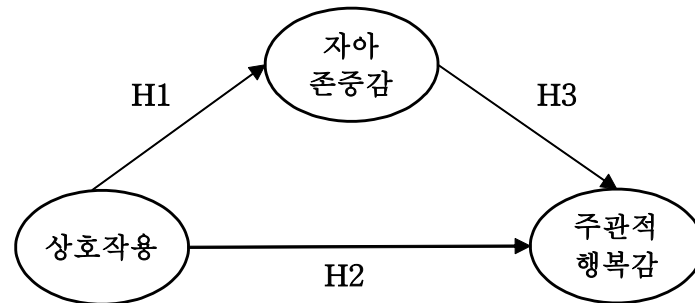
주관적 행복감은 일시적인 기분이 아닌 지속적인 감정으로 인간의 정서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관적 행복감이 높을수록 주어진 환경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활력이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주관적 행복감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우울감, 고립감, 무기력한 상태를 느끼게 된다 (Lyubomirsky & Lepper, 1999). 삶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개인의 목표와 사회가 바라는 행복의 바람은 결과 중심 성장 위주 사회에서 벗어나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황해익 등, 2013).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자아존중감과 효능감이 높으며 즐겁고 건강한 생활로 스트레스 대체 능력이 강하다고 했다. 이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가족과 사회에서 원만한 관계 형성과 경제적 수준, 직업, 종교 등이 개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Diener, 1985; Hills & Argyle, 2001; 김은미·최명구, 2007; 김지영·권석만, 2008).

주관적인 관점과 경험에서 이루어지는 행복감은 긍정적인 정서나 자아 관념을 가지고 만족감을 성취하는 상태로 긍정적 정서의 높음과 부정적 정서의 낮음으로 정서적인 만족을 경험하는 부분이다(Fukuda, 2002). 선행연구에서는 아동의 반려동물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느끼는 교감은 정서적 발달과 주관적 행복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홍재원, 2015). 이렇게 형성된 주관적 행복감은 아동 발달에 사회적지지가 되고 타인과 협조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원천이 되기도 한다. 행복을 느끼는 어떤 대상에 만족감을 성취 했어도 갈망하는 욕구가 만족감 이상으로 크면 아무리 성취해도 충족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사회적으로 적응력이 높을수록 성공적인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즐거움을 느끼며 자신감 있고 건강한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이경민·최윤정, 2009).

### III. 연구설계

#### 3.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반려동물 양육 여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 변인으로 반려동물의 상호작용이 반려인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반려동물 상호작용이 반려인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가설을 세워 검증하고자 한다. 현대사회에서 시대의 변화로 핵가족화, 1인가구와 고령화 증가로 타인과의 소통할 기회가 줄어들고 인간관계 단절로 고립감과 소외감,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양육하는 가정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반려동물이 반려인에게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선행 연구에서 살펴보고 반려동물 상호작용과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 모두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상호작용과 자아존중감의 유의미한 상관관계에서 주관적 행복감이 높을수록 반려동물과의 친밀한 상호작용을 형성한다는 것이 확인된다. 즉, 상호작용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Jennings, 1997; Wells & Perrine, 2001; Gee et al., 2017). 반려동물과 바람직한 상호작용으로 반려인은 소외감이나 외로움을 해소하고, 주관적 행복감을 느낀다(김옥진, 2012; 이나라·최현정, 2021). 반려동물과 상호작용으로 반려인의 대화의 주제를 만들고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부정적이던 자아와 우울감이 낮아지고 정서 화합과 주관적인 행복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Levinson, 1978).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가설 1] 상호작용은 자아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상호작용은 주관적 행복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과 타인을 긍정적인 생각과 우호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김지혜, 2012). 상호작용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보면 반려동물과 상호작용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로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Maller et al., 2006). 반려동물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수록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하고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다(이상임 등, 2019). 자아존중감은 주관적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대한 변인으로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의 특성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다(이선희 등, 2015). 또한 자아존중감이 개인의 적응 문제와 정체감을 해결하고 인간의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Diener, 1985) 자아존중감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서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이정화·김보경, 2005) 자아존중감은 내부적인 요인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높은 자아존중감은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Aspinwall, 1992).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가설 3] 자아존중감은 주관적 행복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2 측정문항

본 연구는 반려동물 상호작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게 수정 및 보완하는 것으로 측정문항을 개발하여 설문조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문항과 참고문항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측정문항

| 변수      | 측정문항                                                                                                                                                     | 참고문헌                                                     |
|---------|----------------------------------------------------------------------------------------------------------------------------------------------------------|----------------------------------------------------------|
| 상호작용    | 반려동물의 집을 치우거나 몸을 씻겨줌<br>반려동물을 만지고, 안아주거나 쓰다듬어 줌<br>반려동물과 이야기를 나눔<br>반려동물과 느낌이 잘 통함<br>반려동물과 산책을 함<br>반려동물과 함께 잠을 잠<br>반려동물 근처에서 시간 보냄<br>반려동물을 사랑하고 귀여워함 | Zimet et al.(1988)<br>이나라·최현정(2021)                      |
| 자아존중감   |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낌<br>내가 장점이 많다고 생각함.<br>나는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br>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만큼 뭐든 잘 할 수 있음<br>나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br>전반적으로 볼 때, 나는 나 자신이 만족스러움      | Rosenberg(1965),<br>박은희·최은실(2015)                        |
| 주관적 행복감 | (현재) 나는 행복함<br>(현재) 나는 즐거움<br>(현재) 나는 나의 삶에 대해 만족함<br>(현재) 나는 대체로 내가 원하는 생활을 하고 있음<br>(현재)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생각함                                       | Hills & Argyle(2002),<br>서은국·구재선(2011),<br>김세용·박형인(2018) |

### 3.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SPSS 24.0을 활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 통계학적인 사항을 파악하고자 빈도분석을 실행하였다. 둘째,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연구의 모형에 적용된 변인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셋째, 반려동물 양육 여부와 효과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분석결과

### 4.1 자료 수집 및 표본의 구성

본 연구는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성이 반려인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현재 반려동물을 양육 중인 반려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약 1개월 간 오프라인 현장조사와 온라인 메신저 서비스를 활용하여 설문을 실시하고, 총 189부의 자료를 회수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 표본의 주요 특성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표본의 구성 (n=189)

| 변인   | 구분     | 빈도(명) | 백분율(%) |
|------|--------|-------|--------|
| 성별   | 남성     | 54    | 28.6   |
|      | 여성     | 135   | 71.4   |
| 연령   | 20대    | 25    | 13.2   |
|      | 30대    | 59    | 31.2   |
|      | 40대    | 45    | 23.8   |
|      | 50대    | 45    | 23.8   |
|      | 60대 이상 | 15    | 7.9    |
| 동물유형 | 개      | 135   | 71.4   |
|      | 고양이    | 37    | 19.6   |
|      | 기타     | 17    | 9.0    |
| 양육기간 | 3년 이하  | 62    | 32.8   |
|      | 4~6년   | 37    | 19.6   |
|      | 7~9년   | 43    | 22.8   |
|      | 10년 이상 | 47    | 24.9   |

## 4.2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Cronbach's 계수를 사용하여 내적일관성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표 3>과 같이 측정문항의 요인적 재치는 모두 .4 이상의 값을 적정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Cronbach's 계수 또한 모두 .7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은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3〉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결과

| 변수 | 요인적재치 |     |     | Cronbach's $\alpha$ |
|----|-------|-----|-----|---------------------|
|    | 요인1   | 요인2 | 요인3 |                     |

|                       |       |             |             |             |             |
|-----------------------|-------|-------------|-------------|-------------|-------------|
| 상호작용성                 | 상호작용2 | <b>.799</b> | .198        | -.001       | <b>.835</b> |
|                       | 상호작용3 | <b>.751</b> | .079        | -.009       |             |
|                       | 상호작용6 | <b>.724</b> | .289        | .028        |             |
|                       | 상호작용1 | <b>.717</b> | .127        | .157        |             |
|                       | 상호작용4 | <b>.683</b> | .031        | .135        |             |
|                       | 상호작용5 | <b>.681</b> | .051        | .234        |             |
| 자아존중감                 | 자존감4  | .093        | <b>.811</b> | .171        | <b>.857</b> |
|                       | 자존감2  | .157        | <b>.792</b> | .217        |             |
|                       | 자존감3  | .105        | <b>.772</b> | .174        |             |
|                       | 자존감5  | .162        | <b>.677</b> | .403        |             |
|                       | 자존감1  | .206        | <b>.661</b> | .255        |             |
| 행복감                   | 행복감3  | .061        | .217        | <b>.818</b> | <b>.853</b> |
|                       | 행복감4  | -.003       | .238        | <b>.792</b> |             |
|                       | 행복감1  | .227        | .220        | <b>.776</b> |             |
|                       | 행복감2  | .192        | .318        | <b>.743</b> |             |
| 고유값                   |       | 3.375       | 3.179       | 2.882       |             |
| 분산설명(%)               |       | 22.497      | 21.191      | 19.212      |             |
| Kaiser-Meyer-Olkin 측도 |       | .849        |             |             |             |
| Bartlett의구형성검정(p)     |       | .000        |             |             |             |

### 4.3 상관관계 분석

다음은 본 연구의 모형에 적용된 변인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4>와 같이 모든 변인 간의 관계에서 정(+)의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모형에 적용된 가설 검정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4〉 상관분석결과

| 구분       | M      | SD     | 1      | 2      | 3 |
|----------|--------|--------|--------|--------|---|
| 1. 상호작용성 | 5.0926 | .58380 | 1      |        |   |
| 2. 자아존중감 | 5.7799 | .75359 | .376** | 1      |   |
| 3. 행복감   | 5.7183 | .72863 | .294** | .577** | 1 |

\*\*p<.001

#### 4.4 가설검증

먼저 상호작용성과 자아존중감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이 상호작용성( $\beta = .376$ ,  $p < .001$ )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표 5> 상호작용성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검증결과

| 종속변수  | 독립변수  | 비표준화계수                                                           |      | 표준화계수   | t값       | p값   |
|-------|-------|------------------------------------------------------------------|------|---------|----------|------|
|       |       | $\beta$                                                          | 표준오차 | $\beta$ |          |      |
| 자아존중감 | 상호작용성 | .485                                                             | .087 | .376    | 5.546*** | .000 |
| 통계량   |       | $R^2 = .141$ , $F = 30.759$ , $P = .000$ , Durbin-Watson = 1.646 |      |         |          |      |

\*\*\* $p < .001$

다음으로 상호작용성과 행복감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6>과 같이 상호작용성( $\beta = .294$ ,  $p < .001$ )은 행복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채택되었다.

<표 6> 상호작용성과 행복감 간의 관계 검증결과

| 종속변수 | 독립변수  | 비표준화계수                                                           |      | 표준화계수   | t값       | p값   |
|------|-------|------------------------------------------------------------------|------|---------|----------|------|
|      |       | $\beta$                                                          | 표준오차 | $\beta$ |          |      |
| 행복감  | 상호작용성 | .367                                                             | .087 | .294    | 4.207*** | .000 |
| 통계량  |       | $R^2 = .086$ , $F = 17.697$ , $P = .000$ , Durbin-Watson = 1.966 |      |         |          |      |

\*\*\* $p < .001$

다음으로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7>과 같이 자아존중감( $\beta = .577$ ,  $p < .001$ )은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채택되었다.

&lt;표 7&gt;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간의 관계 검증결과

| 종속변수 | 독립변수  | 비표준화계수                                                           |      | 표준화계수   | t값       | p값   |
|------|-------|------------------------------------------------------------------|------|---------|----------|------|
|      |       | $\beta$                                                          | 표준오차 | $\beta$ |          |      |
| 행복감  | 자아존중감 | .558                                                             | .058 | .577    | 9.653*** | .000 |
| 통계량  |       | $R^2 = .333, F = 93.174, P = .000, \text{Durbin-Watson} = 2.023$ |      |         |          |      |

\*\*\* $p < .001$ 

다음은 추가분석으로 상호작용성이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표 7>과 같이 상호작용성은 자아존중감을 완전 매개하여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8&gt;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       | 자아존중감          | 행복감            | 행복감            |
| 상호작용성 | 5.546(.376)*** | 4.207(.294)*** | 1.400(.090)    |
| 자아존중감 |                |                | 9.442(.543)*** |

\*\*\* $p < .001$ 

##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성인의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성인 반려인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성이 반려인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상호작용성과 자아존중감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호작용성( $\beta = .376, p < .001$ )은 자아존중감에 연구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과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성인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반려동물의 상호작용 및 자아존중감이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시사한다. 모든 것이 빠르게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가는 현대사회에서는 소통의 기회가 적어지고 소외감과 가족의 구조 변화로 1인 가구 증가와 늘어나는 고령화로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으며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으로 상호작용은 점차 줄어들

들고 있다. 이번 연구는 이런 상황에서 반려동물과 상호작용으로 서로 접촉하며 행복감을 느끼고 사회적 지지를 받으며 자아존중감이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또한 반려동물과 산책으로 신체적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으며, 이웃과의 상호작용도 반려동물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즉, 반려동물과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사회적으로 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Kidd et al., 1981; Ory & Goldberg, 1983; Miller et al., 1992; Podberscek, 2006; Chur-Hansen et al., 2009; Black, 2012; 윤주상·김재호, 2018; 이나라·최현정, 2021). 반면에 반려동물의 오랜 기간 양육으로 노령화된 반려동물에 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의료보험이 보급화 되지 않는 병원비가 부담이 될 수 있고 집안의 생활로 위생관리나 이웃 간의 다툼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반려동물 양육자에 대한 교육이나 반려동물 의료보험, 반려동물의 문제 행동, 교육 등의 시스템이 보편화된다면 반려동물과 지속적인 동반자, 반려동물과 상호작용을 통한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시사한다(이나라·최현정, 2021).

둘째, 상호작용성과 행복감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호작용성( $\beta = .294, p < .001$ )은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과 반려인 사이에서 형성된 상호작용으로 인간은 안정감을 느끼고 긍정적인 평가로 자신의 삶을 판단할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행복감의 조건은 심리적 안정감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려동물과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행복감은 부정적 정서를 긍정적 정서가 제거하는 심리적인 역할을 하고 위기 대체 능력이 탁월하다고 선행연구에서 나타내고 있다. 상호작용을 통한 행복의 욕구와 관심은 성인들만 아니라 유아에게도 해당되며 행복은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것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이현지·정혜옥, 2016). 또한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으로 느끼는 행복감은 사회생활로 소외감과 부정적인 평가로 판단될 수 있다는 초초함과 불안감을 줄여주고, 정서적인 안정에 도움이 된다(김옥진, 2012).

셋째,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 $\beta = .577, p < .001$ )은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과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자아존중감은 긍정적인 영향으로 행복감에 영향을 주고 반려인에 대한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고 외부에서 감정으로 느끼는 편견이나 어려움에 강건하다(Hamachek, 1978). 또한 인간의 발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아존중감은 정신건강의 중심이 되고 바람직한 개인의 긍정적인 성격발달, 바람직한 환경적응으로 행복감과 자기실현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적절한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은 성인뿐만 아니라 인간의 전반적인 발달에 필요한 과업이다.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관심과 존중을 받을 경우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선행연구에서 나타났다. 반대로 부모로부터 방임과 존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할수록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라 생각하지 못하여 행복감이 낮아지지만 스스로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라 여기고 긍정적으로 자아존중감을 높여 간다면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했다. 이로써 인간의 자아존중감에서 비롯되는 행복감은 자신의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의 긍정적이고 자기조절, 자신의 의지로 행복감이 이루어짐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

는 포용력이 필요하다(김정원·어주경, 2019).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시사점을 살펴보면 본 연구는 상호작용과 자아존중감을 완전 매개하여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이들 변수는 정적 상관성을 나타내며, 이들 변수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검증하여 자아존중감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상호작용이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로 연구의 학문적 의의가 있다.

현대사회는 급변하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1인 가족, 핵가족, 고령화로 고립감이나 단절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자아존중감을 높여 주고 행복감을 채워줄 수 있는 반려동물과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또한 인간과 여러 가지 언어나 비언어 몸짓을 이용해 유대감을 나누고 서로 삶을 의지하는 친밀한 가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려동물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주관적 행복감을 경험한다(이현서, 2017). 따라서 반려동물과 같이 생활하는 반려인들에게 반려동물과의 올바른 상호작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반려인들의 주관적 행복감의 향상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다음과 같다. 반려동물과 상호작용이 반려인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본 연구는 연구의 제약으로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지 못한바, 후속 연구에서는 표본을 확장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나 가구형태, 양육 특성 등 반려동물의 양육환경을 보다 세분화해서 비교분석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게재논문에 대한 윤리적 문제는 전적으로 저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강영하. (2008). 초등학교의 행복감 구성요인 탐색. *초등교육연구*, 21(2), 159-177.
- 권혜준. (2015). u-City 사회에서 반려동물교육이 아동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산업경영학회지*, 13(1), 49-62.
- 구재선 · 김의철. (2006). 한국인의 행복 경험에 대한 토착문화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2), 77-100.
- 김지영 · 권석만. (2008). 인지행동적 가족치료이론의 개관-가족도식 및 가족신념을 중심으로. *인지행동치료*, 8(2), 1-26.
- 김혜정 · 장현숙. (2009). 대구광역시 고등학교의 체중군에 따른체형인식, 체중조절 태도와 자아존중감의 비교.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1, 1-22.
- 김미진. (2013). 분리불안 아동의 문제행동 감소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임상미술심리연구*, 3(2), 57-76.
- 김수연 · 이경화. (2015). 영재 인성· 진로 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교생들의 창의성, 자아개념 및 진로인식에 미치는 영향. *영재와 영재교육*, 14(1), 23-44.
- 이선희, 정복례, 김순희. (2015). 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영향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9(1), 115-126.
- 김연화. (2010). 아동청소년의 일상 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과 행복감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12), 287-307.
- 김옥진. (2012). 발달장애 대상 동물매개치료 적용에 따른 효과. *실전특수교육*, 77, 32-37.
- 김은미 · 최명구. (2007).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행복과의 관계. *아동교육*, 16(1), 155-171.
- 김혜영. (2014). 유동하는 한국가족: 1 인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15(2), 255-292.
- 김정원, 어주경. (2019). 해결중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시설보호 여아의 자아존중감과 자기조절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해결중심치료학회지*, 6, 1-26.
- 김지혜. (2012). 중고등학교령기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연구. *글로벌문화연구*, 2(2), 72-100.
- 김세영. (2013). 반려견 소유와 외로움의 관계.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마상진. (2004). 초등학교의 애완동물 소유 및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7, 191-208.
- 박미란 · 김혁곤. (2004). 자기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지역사회교육상담연구*, 3(1), 21-39.
- 박미현. (2020). 교사를 위한 자연친화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상담심리교육복지*, 7(2), 73-96.
- 박석철. (2005).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의 자아, 상황, 행위의 관계: 상징적 상호작용의 관점에



- 서. 한양대학교 문학박사학위 논문.
- 박은희 · 최은실. (2015).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1), 57-79.
- 서은국 · 구재선. (2011). 단축형 행복 척도 (COMOSWB)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96-114.
- 신정인 · 강영걸. (2016). 동물매개치료 (AAT: Animal-Assisted Therapy) 에 대한 이해와 상담 적용적 함의.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5(1), 191-214.
- 윤주상 · 김재호. (2018). 초등학교의 반려동물 경험 및 상호작용이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 1027-1050.
- 이경민 · 최윤정. (2009). 유아교사의 행복, 강점, 직무만족의 관련성 탐색 연구. *유아교육연구*, 29(3), 215-235.
- 이나라 · 최현정. (2021). 반려동물 상호작용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반려동물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4), 1773-1791.
- 이수진 · 정진수 · 천재순. (2008). 어머니의 특성이 초등학교의 과학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초등과학교육*, 27(2), 144-157.
- 이은희 · 공영숙 · 임지영. (2011). 반려동물 경험 유무, 애호도와 대학생의 사회성 및 정서지능간의 관계. *부모교육연구*, 8, 53-73.
- 이정화 · 김보경. (2005).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에 대한 모-자간 일치정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발달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2), 97-119.
- 이한나. (2022). 국내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고찰.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지*, 11(1), 1-5.
- 이현지 · 정혜옥. (2016). 부모의 놀이신념, 놀이참여, 유아의 행복감 간의 관계: 부모의 놀이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육아지원연구*, 11(4), 77-95.
- 정의경 · 황해익. (2000). 부모-자녀의 의사소통과 유아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영유아보육연구*, 6, 47-65.
- 정한나. (2018). 초등학교의 반려동물 경험과 공감능력이 동물실험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인배 · 김현중 · 김원태 · 서강철. (2017).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1-231.
- 조현미 · 최은정. (2017). 정신장애인 주보호자의 가족부담감, 회복탄력성, 영적안녕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26(3), 226-237.
- 한아람. (2017). 성인의 반려동물에 대한 태도 및 애착과 삶의 질과의 관계. *인문사회* 21, 8(6), 1093-1108.
- 한아람. (2018). 반려동물에 대한 태도와 성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9(4),

549-564.

- 황해익 · 탁정화 · 홍성희. (2013). 유치원 교사의 회복탄력성, 교사효능감 및 직무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7(3), 411-432.
- 홍재원 · 문재영 · 엄승섭. (2015). 반려동물에 대한 태도와 자아존중감, 힐링, 양육충성도의 관계 연구. *의료경영학연구*, 9(1), 49-56.
- 이상임 · 이향미 · 한중화. (2019). 그림책을 활용한 또래관계증진 활동이 만 3 세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0(1), 1-23.
- Aspinwall, L. G., & Taylor, S. E. (1992). Modeling cognitive adaptation: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the impact of individual differences and coping on college adjustment and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6), 989.
- Black, K.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anion animals and loneliness among rural adolescents.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27(2), 103-112.
- Chur-Hansen, A., Winefield, H. R., & Beckwith, M. (2009). Companion animals for elderly women: The importance of attachment.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6(4), 281-293.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Coopersmith, S. (1981). *Self-esteem inventories*.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Davis, J. H., Gerace, L., & Summers, J. (1989). Pet-care management in child-rearing families. *Anthrozoös*, 2(3), 189-193.
-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Endenburg, N. (1992). Companion animal owner and their attachment towards their animals. *Siswo Publications*, 37(4), 219-224.
- Friedmann, E., Katcher, A. H., Lynch, J. J., & Thomas, S. A. (1980). Animal companions and one-year survival of patients after discharge from a coronary care unit. *Public health reports*, 95(4), 307.
- Friedmann, E., Thomas, S. A., & Son, H. (2011). Pets, depression and long-term survival in community living patients following myocardial infarction. *Anthrozoös*, 24(3), 273-285.
- Fukuda, H., Kida, K., Kimura, Y., Nishizawa, Y., Kanazawa, Y., Saito, K., ... & Takusari, Y. (2002). Well-being and depression in residents of a provincial city 65 years old or older. *Japanese Journal of Public Health*, 49(2), 97-105.
- Gee, N. R., Mueller, M. K., & Curl, A. L. (2017). Human - animal interaction and older adults: An overview. *Frontiers in psychology*, 8, 1416.

- Harter, S. (1983). Development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formerly Carmichael's Manual of child psychology*/Paul H. Mussen, editor.
- Henderson, K. (1997). Beetles, Beechnuts, and Behavior: Using Nature-based Activities To Develop Social Skills.
- Hills, P., & Argyle, M. (2001). Emotional stability as a major dimension of happi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1(8), 1357-1364.
- Jennings, L. B. (1997). Potential benefits of pet ownership in health promotion. *Journal of Holistic Nursing*, 15(4), 358-372.
- Kidd, J., Feldman, M., Rogers, W., Hart, M., & Boltz, W. (1981). Article about geriatric patient's interaction with pet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2, 119-128.
- Lyubomirsky, S., &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2), 137-155.
- Maller, C., Townsend, M., Pryor, A., Brown, P., & St Leger, L. (2006). Healthy nature healthy people: 'contact with nature' as an upstream health promotion intervention for populations.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21(1), 45-54.
- Maslow, A. H. (1965).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In D. E. Hamachek (Ed). *The self in growth, teaching and learning*. New Jersey: Prentice-Hall. Universities Federation for Animal Welfare.
- McNicholas, J., Collis, G. M., & Morley, I. E. (1995). Psychological support as a mechanism underlying health benefits associated with pet ownership. In *Proceedings of the 29th International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Applied Ethology* (pp. 119-121). Universities Federation for Animal Welfare.
- Miller, D., Staats, S., & Partlo, C. (1992). Discriminating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pet interaction: Sex differences in the older popul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27(4), 363-374.
- Ory, M. G. & Goldberg, E. L. (1983). *Pet possession and life satisfaction in elderly women: new perspectives on our lives with companion animals*. University of Pennsylvania.
- Podberscek, A. L. (2006).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our relationship with companion animals. *Veterinary Research Communications*, 30, 21.
- Kidd, A. H., & Kidd, R. M. (1989). Factors in adults' attitudes toward pets. *Psychological Reports*, 65(3), 903-910.
- Park, Y. S. (2002).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ubjective well-being: Redefining human agency and meaning systems. In *Invited speaking at the 25th International Congress of*

Applied Psychol (p. 101).

Poresky, R. H., & Hendrix, C. (1990). Differential effects of pet presence and pet-bonding on young children. *Psychological Reports*, 67(1), 51-54.

Purewal, R., Christley, R., Kordas, K., Joinson, C., Meints, K., Gee, N., & Westgarth, C. (2017). Companion animals and child/adolescent development: A systematic review of the evid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4(3), 234.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 Press

Wells, M., & Perrine, R. (2001). Critters in the cube farm: Perceived psychological and organizational effects of pets in the workplace.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6(1), 81.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 A Study on the Effects of Interaction with Companion Animals on Self-Esteem and Subjective Happiness

Um, Seon Lee\* · Jo, Dong Hyuk\*\*

### 〈Abstract〉

As a social phenomenon in modern society, companion animals are gradually recognized as life partners or family members due to single-person households, low birth rates, and aging. In particular, due to structural changes in the family, there are fewer opportunities for communication and more people feel isolated or alienated.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ffect of interaction with companion animals on self-esteem and subjective happiness. To this end, research hypotheses and surveys were developed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and a total of 200 copies of data were collected and statistically analyzed to verify the hypothesi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interaction, self-esteem, and subjective happiness. Second, interaction and self-esteem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Third, it was found that interac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subjective happiness. Fourth, it was found that self-esteem had a positive effect on subjective happiness. Finally, interac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subjective happiness by mediating self-esteem.

Through this stud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was that the direction for the friendliness of raising companion animals was suggested by confirming the importance of the effect of interaction with companion animals on their self-esteem and subjective happiness. This will provide basic data on the importance of companion animal interaction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companion role in the life of companion animals, and the raising of desirable companion animals can increase human overall development and subjective happiness.

Topic words: companion animals, interaction, self-esteem, subjective happiness

\* 1st author, Doctor's Student, The Dept. of Project Management, Soongsil University (umsunlee1212@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Ph.D. Professor, The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oongsil University (joe@ssu.ac.kr)